

새송이와 느타리 융합버섯 ‘새느’ 개발

맛은 새송이, 모습은 새송이와 느타리 닮아! 국내 버섯 소비시장 다변화



경남남도농업기술원은 큰느타리(새송이)버섯과 느타리버섯을 융합해 새로운 버섯 품종 ‘새느’를 육성하고,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큰느타리(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은 1990년대 후반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며, 경남농업기술원이 명명한 새송이버섯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2023년 국내 생산량은 5만 3천 톤으로 이 중 경남이

약 28%를 차지한다.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은 표고버섯, 양송이버섯과 함께 오랫동안 재배되어 온 대표적인 식용버섯이다. 두 버섯 모두 영양가가 높고 국내 식용버섯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품질과 외형이 우수한 새송이버섯은 재배 과정에서 숙음 작업 등 노동력이 많이 들고, 느타리버섯은 포장 과정에서 갓 깨

짐과 저장성 부족으로 상품성 유지와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재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송이버섯과 느타리버섯을 융합한 신품종 ‘새느’를 육성했다.

‘새느’는 유전적으로 느타리버섯과 연관이 있으며, 여러 개체가 하나의 덩어리에서 분화되는 다발성 형태를 띤다. 생육초·중기 모습과 조직감은 새송이버섯과 유사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지에서 균을 굵어낸 뒤 수확까지 약 10일이 소요돼 기존 새송이버섯(약 18일)보다 재배기간이 짧아, 버섯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작업 효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 박사는 “느타리버섯류 간 융합을 통한 버섯 신품목 창출과 품종 육성으로 새로운 버섯 소비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최성룡 기자

울주군, KTX-이음 남창역 정차 건의해

울주군 민·관·기업 공동선언문 전달…광역철도 관계부서 면담도 진행



울산 울주군이 11일 국토교통부에 KTX-이음 남창역 정차를 염원하는 지역 민·관·기업의 공동선언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국토교통부 관계부서 철도운영과를 방문해 울주군 민·관·기업이 참여한 공동선언문을 전달하고, KTX-이음 남창역 정차를 촉구했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달 21일 온산국가산단 내 지역기업 관계자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KTX-이음 남창역 정차 유치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군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만나 “KTX-이음 남창역 정차는 울산 남부권의 산업·경제·관광·안전 등 전 분야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므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양읍 주민들이 앞장서서 참여한 서울 청량리역~남창역 정차기원 도보 순례, 음악회 개최, 전국 순회 소원기도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소개하며 KTX-이음 남창역 정차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 군수는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의 예타 통과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부서인 철도투자개발과를

방문해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는 사업비 2조5천475억원을 투입해 울산역에서 범서, 웅촌, 양산, 부산 노포역까지 총 연장 47.6km의 11개 정거장을 잇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순걸 군수는 “울주군 남부권은 산업, 관광,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확장이 이뤄지고 있어 KTX-이음의 남창역 정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개통과 더불어 남창역 KTX-이음 정차를 통해 울주군이 철도교통시대의 중심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 청량리를 출발해 부산 부전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KTX-이음은 지난해 12월 편도 3회(양북 6회) 운행을 시작했으며, 올해 연말 편도 9회(양북 18회)로 증편 운행할 예정이다.

한편, 울주군보건소가 영양플러스 대상자 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호근 기자

글로벌 물협력도시 대구 물의 미래열다

대구광역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K-water,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대구시는 물 분야 해외도시 대표, 학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물도시 포럼’과 ‘대구물산업 포럼’을 중심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물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에는 핀란드 미켈리, 일본 구마모토, 방글라데시 다카, 나이지리아 콰라 등 12개국 9개 도시와 인도네시아 물협회, 세계물위원회(WWC), 아쿠아페드(AquaFed), 이클레이 코리아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포럼은 13일(목) 오후 2시 개막

식을 시작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공 세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정책과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민간 세션에서는 민간 협력과 스마트 물기술의 해외 진출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민간 세션에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KWCC)와 대구 물기업 6곳이 참여해 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 해외 진출 사례를 공유한다.

포럼 본 행사에 앞서 대구시 홍보관에서는 지난해 첫 참석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인도네시아 물협회와 대구시 간 물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인도네시아 물협회는 자카르타 소재 하·폐수 관련 기업 3개사와

함께 참여해 대구시 물기업들과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도 진행한다.

‘대구물산업 포럼’에서는 물산업 진흥 정책 방향과 대구시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산·학·연·관 협력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기간 중 개최되는 전시회에는 총 71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수도물 생산 및 공급, 하·폐수 처리 및 방류, 조순수, 상·하수도 시설 엔지니어링, 산업용수 설비 및 서비스 등을 전시한다.

이와 함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공공구매상담회, 신제품·신기술 발표회, 도슨트 투어 등도 운영된다.

한윤석 기자

경상북도,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경북여성가족플라자서, 도지사, 도의장, 농업인단체장 등 700여 명 참석



경상북도가 한 해 동안 고생한 농업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11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도의회 의장, 도의원 및 도내 농업인단체장, 농업계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해 30번째 맞는 농업인의 날을 축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전문기술 개발 보급과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농업인(농업명장 2, 농업인대상 10) 및 시군(7개 시군), 농업계고등학교(교사, 학생)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경북 농업명장에는 조원호씨(참외, 성주), 이종기씨(오미자가공, 문경)가 선정되었으며, 농업인대상 전체대상은 채소·특작부문 신종순씨(수박, 봉화)가 선정됐다.

부분별 수상자는 식량생산부문 이기형씨(포항), 친환경농업부문 류희일씨(상주), 과수·화훼부문 박재인씨(안동), 농산물수출부문 조규훈씨(영천), 농산물가공·유통부문 이두현씨(김천), 축산부문 박동언씨(청도), 청년농업인부문 이성훈씨(상주), 공동체활성화부문 박일우씨(구미) 여성농업인부문 김수미씨(경산)가 선정되었다.

농업명장 성주군 조원호(58세)씨는 저온기 참외 연속 작과기술과 온·습도 자동조절 시스템 조기 도입으로 고품질 참외 생산에 힘쓰고 있으며, 문경시 이종기(70세)씨는 오미자를 활용한 와인, 증류주 등 다양한 가공 기술을 접목해 제품화에 성공하였다.

경북 농업인대상 전체 대상(채소·특작부문)에 선정된 봉화군 신종순(52세)씨는 시설 수박의

컨테이너를 활용한 반 양액재배 실증을 통해 연작 장애를 극복하는 등 봉화 재산수박 명성을 알리고 소득 창출에 이바지했다.

시군 농정평가에서는 의성군이 대상을 받았으며, 최우수상에는 영천시(시부), 청도군(군부), 우수상에는 포항·경주시(시부), 예천·봉화군(군부)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윤석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지원대책 추진해!

부산 총 62개교 시험장에서 28,883명 수험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부산시는 오는 11월 13일 부산 지역 62개교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부산지역의 수험생 2만 8천883명이 응시하며, 해당 일 오전 8시 40분부터 진행된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교통소통 ▲수송지원 ▲소음방지 ▲의료지원 ▲홍보지원 등이며, 시는 분야별 대책 추진관리와 지

원을 위해 종합상황반을 편성·운영한다.

【교통소통】시험 당일 오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구기관, 50인 이상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조정한다.

또한,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수험생 수송과 교통소통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수능지원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험장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실시간 소통 현황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수송지원】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사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시험장이 몰려있어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의 83개 노선 버스는 해당 시간 배차 간격을 단축 운영하며, 도시철도 임시열차도 비상 대기한다.

【소음방지】시험장이 있는 14개 구·군별 소음대책 점검반을 편성해 시험장 주변의 공사장 및 생활 소음을 점검하고, 시험시간에는 응급·소방차량 경적 자제,

화물차 등 소음 유발 차량 우회 유도 등을 통해 듣기평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응급지원】수험생 중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16개 구·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지원반을 운영하며,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시험장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소방시별 구급 차량을 활용한 신속 구급 활동을 펼친다.

【홍보지원】수험생 유의사항, 수능시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홍보지원반도 운영한다.

이용우 기자

남산정 마음이음공간, 주민함께 만드는 복합커뮤니티

중구 교육·복지·문화 어우러진 생활밀착형 거점…지하 1층~지상 4층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남산3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남산정 마음이음공간’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주민 프로그램과 건강센

터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과 김동원 중구의회 의장, 임인환 대구시의원, 손준석 남산정마음관

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지역협의단체 대표와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남산정 마음이음공간’은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행복이음의 활력마을, 남산정’의 핵심 성과물로, 오래된 약수당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생활거점 공간이다.

교육·종교·산업이 어우러진 남산3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 면적 1,177㎡ 규모로,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하 1층 공동 작업공간과 마을창고, ▲1층 마을작가재정리와 공유부엌, 마을안심상가

(2호), ▲2층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복지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 공유공간과 마을건강센터, ▲3층 공동육아를 위한 공간, ▲4층 통합사무실로 운영된다.

특히, 이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을 획득한 친환경 공공 건축물로, 도시재생의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의미를 더했다.

운영은 남산정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맡아 주민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자립형 도시재생 모델을 실현한다.

류규하 청장은 “남산정 마음이음공간은 주민이 배우고, 돌보고, 나누는 도시재생의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미쉐린 식당·부산 미식관광 새 장 ‘부산 고메 셀렉션’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산 대표 미쉐린 가이드 식당이 참여하는 미식 협업 행사 ‘부산 고메 셀렉션(BUSAN GOURMET SELECTION)’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미쉐린 가이드 부산에 등재된 식당과 지역 식당 등이 함께 미식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각자의 대표(시그니처) 메뉴를 새롭게 재해석하거나 공동으로 메뉴를 개발해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총

30여 곳의 식당이 참여하며, 1차로 미쉐린 가이드 부산 선정 식당 13곳, 지역 식당 등 5곳이 함께한다.

2차 참여 식당 명단은 11월 말 시 공식 인스타그램과 부산관광공사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개발된 메뉴는 각 식당과 영화의전당 ‘크리스마스 빌리지’에서 맛볼 수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연말 미식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크리스마스 빌리지’는 11월 27일부터 12월 25일까지 영화의전

당에서 열리는 부산의 대표 겨울 축제다. 시민들은 이 기간 다이닝 공간과 다이닝존에서 협업 메뉴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오는 11월 15일 스타 셰프 오세득이 ‘금년1983’과 협업해 부산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미식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판매 메뉴와 가격 등 세부 사항은 식당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참여 업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사찰음식 관광상품화 등 미식 관광

의 다층적 콘텐츠 확장과 민간의 활발한 미식 문화 확산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추진 중인 ‘사찰음식 체험단 운영사업’은 삼광사·해원정사·내원정사·보덕사 등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사찰음식 요리교실, 발우공양 등과 연계해 사찰음식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현재 국장은 “미식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라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